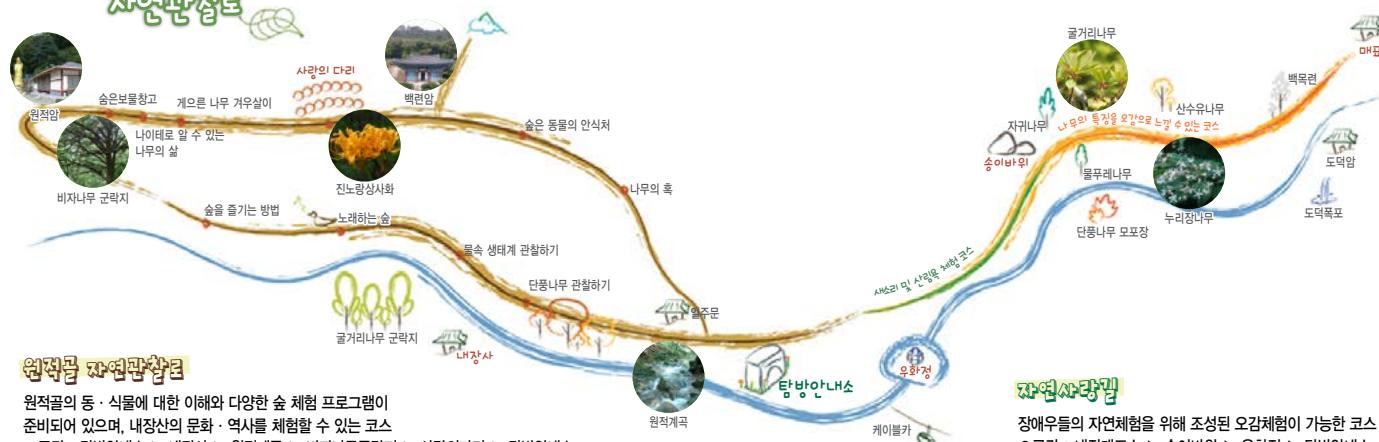


자연과 문화가 있는

내장산

봄여름이야기
자연관찰로

내장지구
자연관찰로



원적골 자연관찰로
원적골의 동·식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내장산의 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
●구간 : 탐방안내소 > 내장사 > 원적계곡 > 비자나무군락지 > 사랑의다리 > 탐방안내소
●거리 : 3.6km ●소요시간 : 1시간 20분

자연사랑길
장애우들의 자연체험을 위해 조성된 오감체험이 가능한 코스
●구간 : 내장매표소 > 송이버섯 > 우화정 > 탐방안내소
●거리 : 2.6km ●소요시간 : 40분

함께 걸으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우리나라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중 가장 먼저 조성된 원적골 자연관찰로는 내장산 특유의 자연자원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연관찰로입니다.

조용한 숲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 풀, 새와 돌멩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자연사랑길은 점자블록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감을 통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내장천의 시원한 경관이 잘 어울려 조용한 사색의 장소나 산책코스로 적합하며, 자연놀이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일 정	장 소
숲과 문화를 체험하는 내장산	연중 (공휴일 제외) 2시간 운영	삼청공원, 원적골 자연관찰로
술거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서	연중 (공휴일 제외) 1시간 운영	일주문~내장사
탐방안내소 해설	연중 (공휴일 제외) 30분 운영	탐방안내소
내장산 자연공작교실	연중 (공휴일 제외) 30분 운영	내장산 일원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 참가방법 : 인터넷 및 전화 예약(사전 문의)
- 전 화 : 063) 538-7874
- 인 터 넷 : <http://naejang.knps.or.kr>



내장산 국립공원

봄여름이야기



국립공원은 이런 곳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11월 17일 내장산과 백암산, 입암산을 포함하여 내장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은 80,708km²로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전남 장성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은 원래 본사인 영은사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이라 불리었으나,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안 내(內), 감출 장(藏)으로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



백제 무왕 37년에 영은조사가 부도전 일대에 창건하여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장사

내장산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진한 노란색의 꽃이 진 후 잎이 달립니다.



진노랑상사화



108단풍터널길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 21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44년에 제작되었으며 지방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동종

봄, 여름 ... 단풍나무의 모습



단풍나무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

봄, 여름에는 단풍나무의 푸른잎과 작고 예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피는 야생화



복수초

1년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며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꽃이다.



내장금창초

입술모양처럼 생긴 자주색의 꽃이 인상적이다.



큰천남성

약재로 쓰이지만 다량으로 쓰일 경우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백양꽃

전남 백양사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며, 한국특산식물 중 하나이다.



배롱나무

100일동안 꽃이 핀다하여 백일홍나무라고도 불린다.



참나리

다양한 나리 중에서 진짜 나리라는 뜻으로 나리 중 가장 크다.

내장산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



노란망태버섯

어린 시기에는 알 형태이며 갓의 크기는 3~4cm로 종의 모양을 하고 있다. 갓 아래의 노란 균방이 빠르게 신장하여 2시간 내에 바닥까지 펼쳐진다.



냄새무당버섯

갓 표면은 선홍색이며, 습하면 점성이 있다. 포자를 퍼뜨릴 시기가 되면 갓 끝부위는 위로 올라가며 매운맛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다.



비단벌레

내장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비단처럼 아름다운 등껍질로 인해 비단벌레라 이름붙여졌다.



대유동방아벌레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나뭇잎에 앉으면 눈에 잘 띈다. 손바닥에 거꾸로 올려놓으면 가슴을 뒤로 젖혔다가 '딱' 소리를 내며 튀어오른다.



올빼미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야행성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낮에 이동하기도 한다. 날개에 솜털이 많아 비행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수달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물가를 따라 서식한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수염과 송곳니가 발달했으며 꼬리 아래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